

줄 잇는 종교편향 끝은 어디에...

경찰·검찰·유치장·지하철까지 안전지대는 없다

9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국민과의 대화'에서 각각 불교계에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연이어 터지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의 사슬을 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보다 대한민국 곳곳에 발생하는 종교편향의 뿌리는 깊었다. 연일 계속되는 종교편향 사례를 모았다.

◇**안상수 인천시장, 작년 이어 또 '복음화' 공언**=2007년 1월 성시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의 이번에도 "인천을 세계복음화 관문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고 개신교 관련시설에 지나친 예산지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시는 2009년 1월 개관할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에 15억원, 제물포 웨슬리교회 예배당 복원비로 20억원 지원방침을 세우고 국비를 포함한 9억원을 10월중 배정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선교역사기념관과 웨슬리교회 예배당에 지원된 35억원은 인천시가 올해 133개 사회단체에 지급한 19억4000만원의 2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여기에 안상수 시장이 2008년 1월 성시화운동법안 주최 조찬예배에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연세대에 세계선교센터를 건립해

한반도 관문인 인천을 세계 복음화 관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안 시장의 종교편향 행위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 남부지검 검사, 수사 중 특정종교 강요**=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9월 11일 서울남부지검검찰청 김현선 검사와 강모 계장이 조사 받던 고소인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해 물의를 빚었다고 발표했다. 종평위는 "특정종교 강요에 고소인이 강하게 거부하는사를 밝혔음에도 고소인의 요구는 무시됐고, 김 검사는 같은 특정종교인이었던 피의자와 차별적으로 대하며, 고소인을 회유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종평위는 9월 3일 남부검찰청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김현선 검사는 같은 날 '증거불충분과 기소유예' 사건처분결과 통지를 했다.

◇**영종초교 교사,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립학교인 영종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 중 특정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교사는 학생을 상대로 차별적으로 대하는 등 종교편향·차별을 했다는 제보내용이 접수된 상태다. "하나님 믿

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등의 발언으로 특정종교를 찬양한 교사는 특정종교 선교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부모님과 공부하라"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관할청인 서울 남부교육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지하철도 종교편향 지대**=국가기반시설이며 서울시 소속 공기업인 서울 지하철역사도 종교편향에 노출돼 있었다. 종평위는 9월 3일 예방활동 사업 중 1·2호선 신도림역, 2호선 문래역, 4호선 사당역, 5호선 아차산역, 6호선 합정역사 내에 설치된 쉼터에 특정종교 홍보물 등이 설치돼 시민들에게 선교활동을 펼친 것을 지적하고 시정요청했다. 특히 4호선 사당역사에는 서울메트로 기독교신우회 사무실에 특정종교 선교단체인 교동문화선교회와 교동문화협회가 무상 입주·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진경찰서 유치장 내 전도활동**=경찰서 유치장서도 특정종교는 강요됐다. 8·15 광복절 집시법 위수집시간 중 특정종교를 지나치게 강요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교사는 학생을 상대로 차별적으로 대하는 등 종교편향·차별을 했다는 제보내용이 접수된 상태다. "하나님 믿

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등의 발언으로 특정종교를 찬양한 교사는 특정종교 선교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부모님과 공부하라"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관할청인 서울 남부교육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목사, 불교계 폄훼 망언 릴레이**=신일수 목사(서울 할렘루터 성결교회)는 공개기도회에서 불교계에 망언한 강경종 목사를 두둔하고 종교차별에 반발한 불교계와 스님들을 막말로 비하해 비난을 샀다. 신 목사는 설교 도중 "머리 민 정신나간 사람들이 정권되진하려고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라며, "나랏돈이 절간에 얼마나 쓸데없이 많이 가는지 모른다"고 불교계를 비하했다.

이어 신 목사는 "부처님이 살아있으면 신도들에게 복을 줘야지, 복준게 없어서 불교 믿는 나라가 모두가 난하다"며 강경종 목사의 망언을 두둔했다. 신 목사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기독교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등 상식이하의 설교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lana@buddhapia.com

국민대화합 국토수호 대장정 출정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일간 국토 순례



국민화합범불교종단협의회는 9월 11일 파고다공원에서 '범종교 범종단' 화합을 발원하며 십자가·단군·불상을 등에 지고 국토수호 대장정에 나섰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민 대화합 국토수호 대장정 출정식' 환송 행사가 9월 11일 서울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거행됐다.

'국민 대화합 범불교 종단협의회' 의장 가산 스님(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은 "지표와 탈출구는 오

직 하나다. 국민이 뿔뿔 뿔쳐 대화합해야 한다. 부처님과 단군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로 화합해 가난한 자와 중생을 향해 걸어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안을 기원하는 이번 출정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출정식을 시작으로 마성·

마조·지원 스님은 20일 동안 한반도의 3·1운동 정신이 깃든 곳을 도보 순례하며 부산을 최종 목적지로 삼는다. 9월 28일에는 전북 장수군에 위치한 용성초사의 탄생지 죽림정사에 도착해 3·1절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할 예정이다. **기연숙 기자**

북한동포돕기 서명운동 90만명 돌파

정토회, 국내 12개·해외 14개 지역서 운동

정토회(지도부사 법륜스님)가 진행하는 북한동포돕기 100만인 서명운동이 9월 11일 현재 90만명 서명을 돌파했다.

이번 90만 서명인 돌파는 북한동포를 살리기 위해 지난 7월 8일 '굶주리는 북한주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청주 등 국내 12개 지역

과 미국과 독일, 필리핀 등 해외 14개 지역에서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10월 5일까지 약 100일간에 걸쳐 전개될 예정이다. 정토회 이상한 사무총장은 "9월 내 100만 서명운동이 달성 예정이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재개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노덕현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정부 종교편향" 지적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종교 편향적'이라는 데 공감한다"는 의견이 59.3%에 달했다. '매우 공감 38.4%+대체로 공감 21.9%'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30.1%)'는 의견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이 믿는 종교에 따라서는 개신교 신자(41.6% < 47.6%)의 경우 '종교 편향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불자(49.7% > 35.4%)와 무교(62.2% > 29.7%), 천주교(57.2% > 32.5%) 신자는 '종교 편향적'이라는 의견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조동섭 기자**

4대종단 성직자 축구대회

불교·원불교·개신교·천주교 4대 종단 성직자들은 9월 8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화해와 평화' 기원 4대 종교 성직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종교간 협력과 화해의 본분을 살려 대화가 은혜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 종교 선수 선수와 대표를 시축에 이어 진행된 경기에서 불교팀은 1차전에서 가톨릭팀을 3대 0으로, 결승전에서 원불교팀을 1대 0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우승한 불교팀을 비롯해 2위 원불교팀, 3위와 4위를 차지한 개신교팀, 천주교팀 모두 지난 대회와의 전통을 살려 삼국 전역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했다. **조동섭 기자**

종교편향 관련 토론회 잇따라 열려

9월 10·11일 각 종교 대표들 열린 토론

공직자 종교편향과 관련한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는 9월 11일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공직자의 종교행위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박광서 교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 원철 스님, 제3시대 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김진호 목사, 우리신학연구소 이사 조육중 신부가 각 종교를 대표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박광서 교수는 "선·포교의 자유

는 타인의 종교인권을 존중함에 있어 누릴 수 있는 상대적 권리로, 개인의 종교 신념으로 인해 사회갈등을 일으킨다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공직자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공직자는 공직에 있는 동안 자신의 종교를 잊고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법과 종교차별' 종식 범불교대책위 기획홍보팀도 9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토론회를 열고 종교차별 금지법 입법 여론 조성 및 사이버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윤남진 참여불교재가

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를 비롯해 불교 인권위, 대불련, 환경연대, 재가연대, 보리방שמ모니터회, 포교사단 등 불교계 관계자 20여 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남진 사무처장은 "한기총 등 개신교 단체들이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막기 위한 금지법을 개인의 종교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 오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 DAUM 아고라에 토론방 개설하기 ▶ 블로그 뉴스, 카페 뉴스를 통한 여론 형성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노덕현 기자**

소년·소녀 가장 돕기 울산시·군민과 좋은 인연, 좋은 만남

한마음선원 산사음악회

OPENING
타악과 어우러진 퍼포먼스

국악공연
퓨전 가야금 명창

퓨전클래식 공연
남자 바리톤 독창

한마음선원 합창단

대중가수 공연
남궁옥분 민혜경

연합합창
해수관음의 빛

2008년 9월 27일(토) 오후 6시 30분

증가추절을 맞아 여러 대덕스님들과 불자님 여러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는 소년소녀 가장들을 돕고, 밝고 아름다운 한마음의 선율속에서 모두가 자성 밝혀 자유인이 되길 발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가 참 공덕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음악회

- 날 짜 : 2008년 9월 27일(토요일)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북구 천곡동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
- 출연가수 : 김중환·전영록·남궁옥분·민혜경
- 후 원 :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원연합회, BTN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전화 052)295-2335 / 팩스 052)295-2336